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2. 15

주간 달러/원 동향(12/8~12/12)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9월 PCE물가지수가 반등했지만,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12월 FOMC 금리인하 기대가 유지된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계감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 전환
- 중반,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 짙어진 가운데 수급에 따라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 후 소폭 하락
- 후반, 연준 금리인하 결정 및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비둘기적 평가에 따른 달러 약세에 큰 폭 하락 출발했으나, 저점 인식 속 달러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당국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AI 산업 불안감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상방 압력 받으며 1470원대 초반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AI 거품 우려가 재부각된 데 따른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하며 상승 압력 받을 전망
- 뉴욕증시에서 AI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 논란이 불가진 여파로 위험회피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러한 영향 속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원화 약세 흐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다만,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상단 인식이 견고해진 점은 상방 압력 완화해줄 것으로 보임
- 또한, ECB와 BOJ가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보다 매파적인 신호를 보낼 경우, 달러 약세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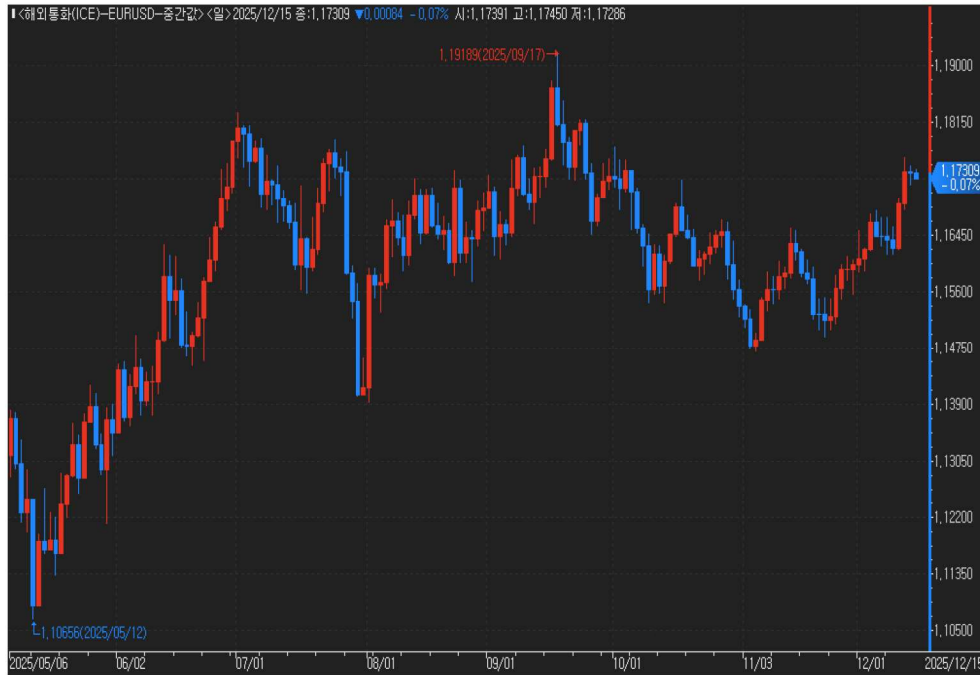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472.8	1473.9	1463.9	1473.7	+0.9
--------	--------	--------	--------	------

예상거래범위

1,465원 ~ 1,48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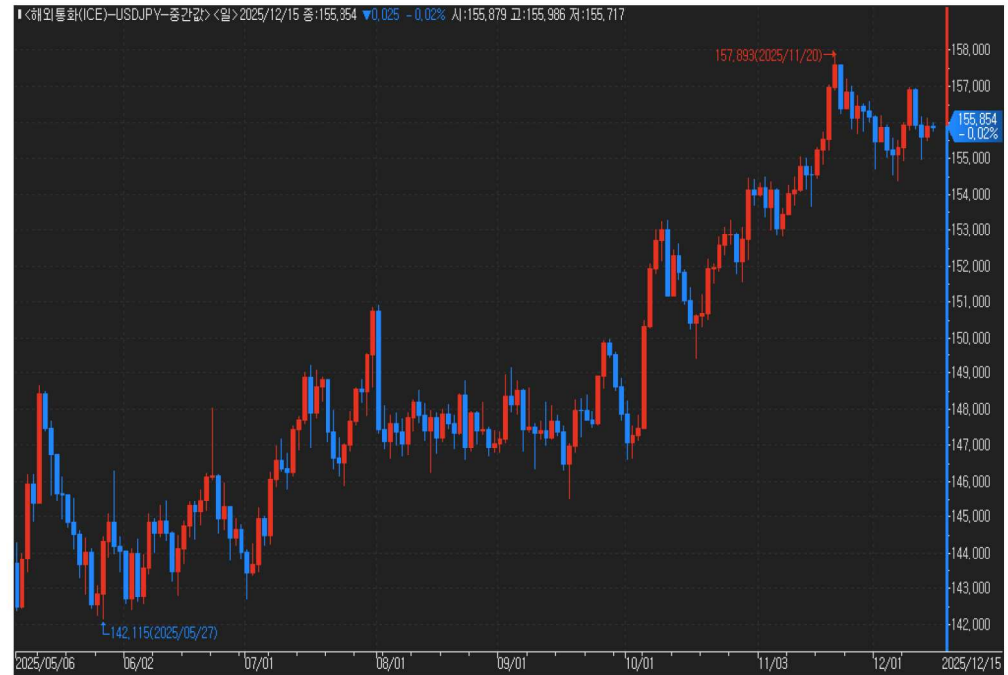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12/8~12/12)



유로화 동향

- 주초,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려둔 슈나벨 ECB 집행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독일 10월 산업생산 증가세 등 유로화 강세 재료에도 FOMC 앞둔 경계감에 달러 대비 소폭 약세로 출발. 이어 예상울 웃돈 미 구인건수 등 양호한 미 고용데이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추가 약세
- 중반, 12월 FOMC 금리인하 결정과 유로존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 등에 큰 폭으로 반등하며 1.17달러 선에 근접
- 후반, ECB의 경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연준은 시장의 우려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달러 대비 강세 흐름 이어짐. 이어 주 후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 반등하자 소폭 하락 후 1.17달러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44	1.1763	1.1615	1.1739	+0.0095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강진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우에다 BOJ 총재의 국채 매입 관련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FOMC 경계심리 강화되면서 157엔선에 근접
- 중반,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과 BOJ 금리인상 전망이 대비되자, 미-일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
- 후반, FOMC 여파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증시에서의 AI 고평가 우려 속 안전자산 수요 유입되면서 추가 강세. 이어 주 후반, BOJ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긴축 정책을 지지하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달러 반등하자 약세 전환 후 155엔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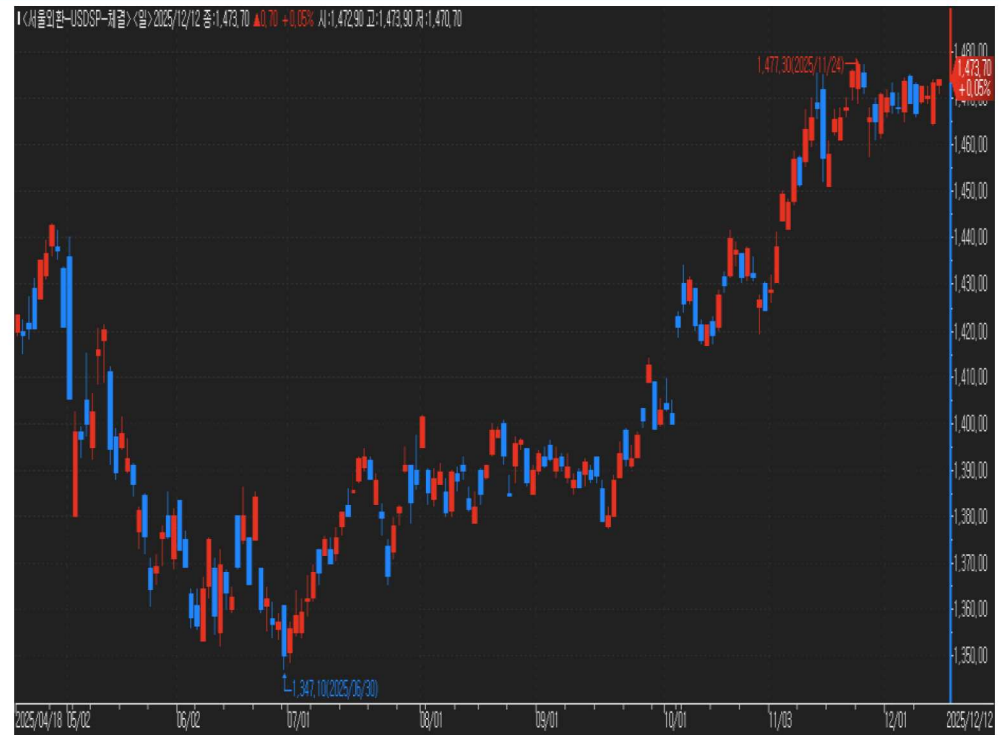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5.3	156.9	154.4	155.9	+0.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8~12/1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미 9월 PCE 가격지수 헤드라인 및 근원상승률이 전월비로 각각 0.3%, 0.2%를 기록,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한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른 시장 분위기 속 외국인 국채선물 지속 순매도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상승 출발. 이어 글로벌 금리의 '숏(매도)' 영향 반영 속에 상승 추세 유지한 국면
- 중반,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 짙은 장세 이어진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FOMC 결과에 국고채 강세 시현 후, 점차적으로 약세 전환하는 모습 시현 후, 주 후반, 전일 국고채 시장 약세 과도 인식 등으로 강세 출발 후 그 흐름 이어이는 양상 나타냈으나, 10년물 금리만 소폭 상승 흐름 시현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전주 후반 뉴욕증시가 9월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에 상승 출발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 강세 출발 후, FOMC에 대한 관망 심리 상존 등으로 상승세 일부 반납 양상 시현. 이어 연준 통화정책 결정 요인 등에 따른 경계심리 및 반도체 관련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소폭 하락
- 중반 들어, FOMC 경계감 속에 글로벌 증시의 대체적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코스피도 연준 정책 관망세 유입 속 기관과 개인투자자 순매도 확대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의장 언급에 대해 시장이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인식한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는 장중 차익실현 등으로 소폭 하락 양상 나타낸 후, 주 후반, 뉴욕 증시에서의 주도주 중심 매수세에 따른 상승 영향 반영 속에 1%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